

위브릿지 연합기도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교회들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연합 기도회를 22일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웨이비젠허교회(김지연 목사)에서 개최했다.

오후 9시에 시작한 기도회는 연합 찬양 인도단과 참석자들이 찬양으로 모임을 이끌어 갔다. 김지연牧사는 “전 세계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놀워장교회 차권희 목사는 “성령 사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행 2:36-41)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의 민족과 영혼들이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소원인 것이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로마 병정,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줄 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다. 만일 우리 한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다.

이어 “성경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라고 했다. 진짜 예배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죄는 나를 하나님 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이다. 나의 죄를 내려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시애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24일 사무스센터 AMC극장의 두 차례 상영된 <건국전쟁>은 300석 가까운 좌석이 모두 매진됐다. 관련기사 12면. ©기독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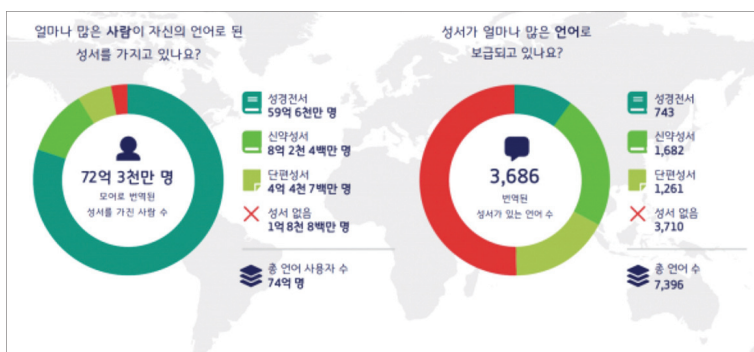
다. 많은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기를 바란다. 십자가

앞에 죽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가짜일 수 있다”고 했다. 차 목사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한다”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서 120명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것과 같이, 연합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세례의 체험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여러분 가정과 개개인의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4면에서 계속

전 세계 14억6천만 명, 그들 언어로 된 성경전서 없다



2023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연구, 언어 통계. ©대한성서공회

지난해 전 세계 성서공회들이 12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106개의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다고 대한성서공회가 26일 ‘2023 세계 성서 번역 현황’을 통해 밝혔다.

공회 측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성서로 번역된 누적 언어 수는 총 7,396개의 언어 가운데 성경전서는

743개, 신약성서는 1,682개, 단편성서는 1,261개로 총 3,686개다. 아직 3,710개의 언어는 단편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았거나 번역 중이다.

전 세계 59억6천만 명이 성경전서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은 8억2천4백만 명, 부분적으로 번

역된 성경을 갖게 된 사람들은 4억 4천7백만 명이다.

공회 측은 “하지만 1억8천8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 세계 언어 절반가량은 아직 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았다. 그리고 14억6천만 명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전서가 없다”고 했다.

지난해 성경전서와 신약성서, 단편성서를 포함한 72개의 언어로 첫 번역 성서가 출판됐다. 이 가운데 16개 언어는 성경전서로, 17개 언어는 신약성서로, 39개의 언어는 단편성서로 각각 번역됐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번역 기관들 간의 협력 증대, 기술의 발전 등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성서 번역 역사에서 없었던 흐름을 이끌어 내고 있다. 김진영 기자

미 기독교인의 동성결혼 옹호 이유는?

최근에 미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크리스천포스트(CP)에 소개되었다.

이 글을 쓴 존 스톤스트리트(John Stonestreet) 목사는 콜슨 기독교세계관센터(Colson Center for Christian Worldview)의 회장이며, 신앙과 문화, 신학, 세계관, 교육 및 변증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다음은 칼럼의 요약.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1%가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64%는 동성애자의 관계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수치는 한 세대 전보다 두 배나 증가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 중 41%는 동성 간의 ‘결혼’을 지지하는 반면, 덜 자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67%는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

어떻게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결혼관을 받아들여지게 된 것일까?

동성 간의 결합을 ‘결혼’으로 합법화한 시초인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기 훨씬 전에, 결혼의 의미는 이미 약화되고 있었다. 이는 다양한 문화적 요인들 때문이었지만, 아마도 피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았다. →6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소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회를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Jesus is Risen!

주일예배
 1부: 주일 오전 9시 15분 (캐플튼)
 2부: 주일 오전 11시 00분 (캐플튼)
 3부: 주일 오후 12시 45분 (노스캠퍼스)
 4부: 주일 오후 2시 30분 (캐플튼)
 Bridgeworld Church : Morning at 10AM (North Campus)
 세미한영어예배 (English Service) : Morning at 11:15 AM Markers Hall

주중예배
 금요성령집회: 금요일 오후 7시 (복당)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시 (본당)
 목장모임: 목장이 정한시간
 청년부 예배: 토요일 오후 7시 (본당)
 향기로운 수요일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연중 봄/가을학기 중)

다음세대예배

<p>주일 영아부 예배 (SPROUT) - 매달 둘째주일 2부 예배 후</p> <p>유치부예배 (DREAM KID) 유초등부예배 (TEAM KID) 청소년부 예배 (POWER YOUTH) - 1부: 주일 오전 9시 15분 (캐플튼) - 2부: 주일 오전 11시 00분 (캐플튼) - 3부: 주일 오후 12시 45분 (노스캠퍼스)</p>	<p>동고리(장애인)예배 - 주일 오전 11시 00분 (에벤에셀홀)</p> <p>유치부선교학교 (미션프렌즈) 유초등부선교학교 (CIA/Awana) - 금요일 오후 7시</p> <p>카린 어린이 합창단 - 주일 오후 1시 (에벤에셀홀)</p>
---	---

2024 Overflowing Worship

다들 사랑하는 예배

세미한교회
 캐플튼
 1615 W Belt Line Rd,
 Carrollton TX 75006

노스캠퍼스
 9750 John W. Elliott Dr,
 Frisco, TX 75034

Bridgeworld Church
 9750 John W. Elliott Dr,
 Frisco, TX 75034

세미한의 5대 비전 (W.O.R.L.D.)
 세계는 우리의 사랑과 기쁨으로

Worshipping Church : 예배하는 교회 - 예배사역

Okkos Church : 소그룹 교회 - 소그룹(목장)/친교사역

Reaching Out Church : 돕는 교회 - 구제/봉사사역

Life Giving Church : 살리는 교회 - 선교/전도사역

Discipling Church : 제자하는 교회 - 교육사역

2024 나눔On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길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은 25일 오전 11시,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나눔On지원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나눔On캠페인은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다. 그동안 자선단체 및 재단을 향한 해외 선교지를 돕는 일로 확장되어 올해는 4곳의 선교지와 11곳의 자선단체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손경민 목사와 The 은혜 워십팀'을 초대해, 남가주동신교회, LA 주님의영광교회, 얼바인베델교회, 에서 <자선콘서트>를 열고 '공개모금생방송'을 실시해 공개 모금을 진행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재난, 난민 돕기 미션펀드로 4곳의 선교지(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아이티, 요르단)에 총 \$55,000, 11곳의 지역사회 자선단체 (퍼스트 펠린'이라 명칭)에 각각 \$5,000씩 총 \$55,000, 오는 10월 25-26일에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리게 될 '한인교회발달장애키퍼런스' 지원을 위해 \$10,000이 전달되어 총 12만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은 25일 오전 11시,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나눔On지원금 수여식'을 가졌다. 나눔On캠페인은 2020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4곳의 선교지와 11곳의 자선단체를 지원했다. ©GBC

부사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개회기도는 '생명의 전화' 대표, 박다윗 목사가 맡았다. 이어서 이영선 사장이 나눔On프로젝트 사역을 보고했다. 이영선 사장은 "우리가 세웠던 목표액을 이번에도 하나님이 꼭 채워 주셔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었다. 하나님이 채워주

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주복음방송에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주신만큼, 모인 후원금은 전액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가 지원금을 전달했고 "미주복음방송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에 감사하다"며, "이미 '나눔'의 정신으로 사역을 펼치던 자선단체들이 이렇게 받은 사랑을 또 세상에 흘려보내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격려사를 전했다.

참가자 전원이 소감을 전하고 사역을 소개했고, 직접 참여하지 못한 선교사들은 영상으로 소감과 서사역 계획을 나누었다. 특별히 올해 퍼스트 펠린으로 처음 선정된 BRIDGEWAY FAMILY LIFE CENTER의 대표 양희원 교수는 "후원자와 지역교회 성도분들로부터 그분들의 삶의 일부를 수혈 받은 느낌이다. 그래서 피를 공급받아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THE LOCK MINISTRY의 대표 한기영 목사는 "미주복음방송 역시 자금이 필요한 비영리기관으로서, 다른 사역단체들을 위해 모금 운동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앞장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들도 그 정신을 본받아 다른 사역단체들을 함께 도우며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영선 목사는 "어려운 시기에 도 중단하지 않고 섬김을 실천하는 자선단체들을 보면 지원을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라며 말했다고 살롬장애인선교회 대표 박모세 목사의 기도도 수여식을 마무리했다. 김민선 기자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LA 중앙노회 제 8회 정기 봄노회 개최



WPC세계예수교장로회 LA중앙노회 제 8회 정기 봄노회. ©WPC LA중앙노회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LA 중앙노회 제 8회 정기 봄노회가 2024년 3월 18일(월) 조이폴교회(김정호 목사)에서 진행되었다. 1부 예배로 노명구 목사(남가주 하나교회)의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노회' (고후 7:4) 설교와 노회장 김정호 목사(조이폴교회)의 성찬 예식, 신

관호 목사(생명의 빛 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로 회무를 진행했다.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산하에 Petra University가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학생모집: B.Th, M.Div, D.Min 유학비자 가능. petrauniversity.org 문의: 213-210-3877

남가주 사랑, 부활절 나눔 축제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는 부활절을 맞아 3월 30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 인근 주민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초청해 부활의 기쁨과 주

님의 사랑을 나누는 부활절 나눔 축제를 비전광장과 주차장에서 연다. 음악, 음식, 중고품 판매, 바자, 기념품 판매 등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천환 목사 "벽을 뛰어넘는 힘은 바로 말씀이다"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로템장로교회에서 천환 목사(인천 예일교회 원로목사, 한장총 제41회 대표회장)가 3월 24일(주일) 주일 예배에서 "벽을 뛰어넘는 은혜"(시편 18:28-3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천환 목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벽들이 있다. 전 세계 OECD 국가 세계무역 10대국이지만 우리 안에는 정치적인 첨예한 벽이 있다"고 설교를 시작했다.

"오늘 본문의 캐릭터는 사슴이다. 사슴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위와 산성을 뛰어넘게 하시고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방으로 우거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이 시편 18편을 통해, 시한부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처럼, 양처럼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끄집어 내셨고 벽을 뛰어넘게 하셨다고 고백한다."

천환 목사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그의 힘이 있다. 환란이나 적신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했다.



천환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41대 회장)가 로템장로교회에서 3월 24일(주일) 주일예배 때 설교했다. ©기독교일보

두 번째로, 그는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영성이 온라인에 익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멀어졌다. 오늘의 한국교회마다 기도의 무릎이 약해짐을 보게 된다"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기도할 줄은 다 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천환 목사는 "복종의 가장 큰 복은 전화위복이란 복이다. 모든 상황을 바꾸고 모든 벽을 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반전하게 하시는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했다.

"벽을 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윗은 입이 마르고 숨 막히는 죽음의 사선의 현장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는 힘이고 양식이고 능력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다윗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목소리를 가지고 상황을 뛰어넘었다.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다. 주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어떤 벽도 뛰어넘게 하는 힘은 여기서 온다." 주디한 기자

나성영락교회

하나님의 사람 | 하나님의 나라

나성영락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더욱 새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성영락교회는 3가지의 목표, 하나님을 섬기며(섬김), 이웃과 나누고(나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전함) 한인교회로, 지역공동체와 한인사회, 미주와 세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더욱 힘을 내어 감당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박은성 Rev. Dr. Eunsung Park

- 예배안내
- 주일예배 1부 7:30 AM
- 주일예배 2부 9:00 AM
- 주일예배 3부 11:00 AM
- 교육부예배 11:00 AM
- EM예배 11:00 AM
- 청년부예배 1:30 PM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의 소망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 건강한 사역자와 사역지를 찾아서5

인기 강사, 성공적인 비즈니스맨, 선교사에 이어 목회자로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삶의 경험을 삶의 실력화하는 것이다. 과거에 살아온 삶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다. LA 다운타운에 우뚝 서 있는 주님의영광교회를 담임하는 신승훈 목사는 늦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다. 목회자 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그런데 신승훈 목사는 살아온 경험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 활용하는 사역자다.

신승훈 목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인기 있는 학원 선생으로 활약했다. 그러다가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와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다. 학원의 인기 강사로 성공했었던 신목사는 미국의 비즈니스에도 성공적이었다.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지만 “인기 강사”의 경험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의 경험을 목회와 선교 현장에 선용하는 목회자다.

복음의 핵심을 누구보다 쉽게 가르치는 설교자

신승훈 목사는 어려운 사실을 쉽게 설명한다. 복잡한 얘기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하는 신승훈 목사는 과거 유능한 학원 강사의 경험을 살리는 목회자다. 강사 시절 핵심을 잘 정리해서 인기 강사였던 신 목사는 핵심을 쉽게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다. 그는 복음의 핵심을 꿰뚫는 설교자다. 캘리포니아 자녀들을 망치는 악법(2024)과 평등법(2021)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하자 참석자 모두가 환호했다.

그는 선교지에서도 가르치는 사역을 이어갔다. 선교지에서 신학교들을 세우고, 많은 목회자를 양성하였다. 그리고 현장 목회자들

에게 목회자 신학 훈련을 제공했다. 가르치는 선교를 통해 사람을 세운 것은 선교전략으로 매우 훌륭한 전략이었다. 훈련 받은 목회자들이 현장을 누비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다. 신 목사는 자신의 가르치는 경험과 은사를 조화롭게 활용하여 선교지를 개발한 것이다.

창의적 시선과 도전정신을 교회 개척에 적용해

그런데 그의 교육 선교가 더욱 빛난 것은 그의 비즈니스맨의 창의적 시선과 도전정신 덕분이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목회자 훈련, 신학생 훈련, 그리고 교회 개척을 했다. 400여 교회를 섬기고, 신학교와 여러 분교들 운영, 그리고 아동들을 위한 학교들을 운영했다. 다양한 사역의 현장을 관리하고 여러 시설을 통제하는 능력은 많은 선교 현장이었지만 특유의 통찰력과 추진력으로 선교 현장을 촘촘하게 통제했다.

건강 때문에 선교지에서 돌아와 쉬면서 교회를 섬기던 신승훈 목사는 갑자기 목회를 하게 되었다. 여러 사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교회에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영겁결에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신 목사에게 교회 합병 제안이 있었고 응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전도 많았지만, 신승훈 목사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였다. 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거듭했다.

신승훈 목사는 일을 좋아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군대에서 전역할 때도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부대로 들어가 하던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갔다. 범상치 않은 일이다. 학원 강사 시절도 열심히 일하는 강사였다. 미국에 이민을



주님의영광교회의 신승훈 목사. ©기독일보

와서 사업을 할 때도 몇 개의 비즈니스를 열어 열심히 일하며 뛰어다녔다.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갔을 때도 열심히 선교했고, 목회도 열심히 선교했다.

신 목사는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도 열심이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과정, 주님을 만나는 과정, 은혜를 받는 과정에서 그의 열심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열정의 노력이 보인다. 완전한 불신자 가정 출신인 신승훈 목사는 이민자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사업으로 바쁘고 힘든 세월이었지만 사모하며 열심히 뛰어다니다 은혜를 받았다. 주님을 만났고 성령세례를 받았다.

선교사 후원하다 선교사가 되다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 생활하다가 선교부 디렉터를 맡았다. 선교지를 누비며 열심히 선교 사역을 섬겼다. 후원하다 선교사가 되었고, 영겁결에 목회자가 되었다. 교회나 교회 행사 등등 일반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지금도 잘 모른다고 고백한다. 목회를 잘 모른다는 겸손이 신 목사의 진정한 실력으로 보인다.

환절한 키에 미소가 아름다운 신승훈 목사는 따뜻함과 겸손함이 배어 있다. 신 목사는 선교사나 기관 사역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목사로 잘 알려졌다. 신 목사는 선교지를 품고, 도움이 필요한 사역자들을 따뜻하게 품는다. 신승훈 목사의 이런 성품은 그를 커뮤니

티 교계와 교단 그리고 다양한 연합 사역을 섬기게 한다.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연합 사역이 어려운 시대에 신승훈 목사의 사역이 빛나는 까닭이다.

신승훈 목사의 세 가지 기도제목

신승훈 목사에게는 중요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우선 준비 중인 건축을 위해 기도한다. 안전하고 무리없는 공사 진행과 건물을 사용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다. 신 목사와 당회는 교육관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음 세대에 늘 미안했다. 교육관 건물은 사무실들이 함께 있어서 늘 옹색하고 불편했다. 세워질 새 교육관으로 다음 세대가 더욱 힘을 얻기를 기도한다.

신승훈 목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후임자를 위한 기도이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자신은 선교지를 방문하며 마음껏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한다. 선교사 출신의 신승훈 목사는 늘 선교지를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선교현장을 보아온 신목사는 목회를 마치면 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선교 현장에 쏟아붓고 싶은 것이 신 목사의 기도이자 꿈이다.

신승훈 목사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미국을 위한 기도다. 청교도 신앙 정신 위에 세워진 미국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면서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법안들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모습을 보며 미국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온다. 신 목사는 영적으로 깨끗한 영적 육적 환경을 물려주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강태광 기자(WorldShare USA 대표)

소망소사이어티,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기치로 두고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오는 4월 4일 오후 1시 30분 남가주 새누리교회(975 S. Berendo St. #109, LA CA 90006)에서 LA 지역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주최한다.

참가자는 자원봉사자 교육 후 소망소사이어티 사무실과 소망케어교실에서 봉사할 수 있다.

소망케어교실이란 치매증상을 가진 환자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휴식 공간을 주기 위해 지난 2015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손 운동, 신체운동요법, 생활 및 사고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과 미술, 음악, 산책 등의 활동을 제공해 자원봉사자가 1대1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교육한다. 소망케어교실은 또 치매환자 가족 및 간병인을 위한 지원 모임도 실시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의 문의: 213-908-5034.



소망소사이어티 제5기 죽음 준비 전문 강사들과 참석자들. ©기독일보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신승훈 담임목사

예배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30
- 3부예배 오후 1:00
- 라티노(스페인어) 주일 오후 5:00
- GCEM 오후 1:00
-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 Grace and Glory of God 러시아 교회 토요일 오후 2:0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예수 부활하셨네!



2024년으로 창립 25주년을 맞게된 주님의 영광교회는 L.A.다운타운, 그랜드와 워싱턴이 만나는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교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구원을 받으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하여 제자되기를 힘쓰며, 2세가 될되도록, 또한 선교에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라크마 챔버 코랄 찬양집회 “그리스도 수난의 현장”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인 24일 오후 5시 한길교회(고광선 목사)에서 라크마챔버코랄 사순절 찬양집회가 개최되어 그리스도의 수난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독교일보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인 24일 오후 5시 한길교회(고광선 목사)는 라크마 챔버 코랄(지휘 윤임상 교수)을 초청해 “십자가: 그리스도의 수난의 현장”라는 주제로 찬양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I. 경배와 찬양, II. 십자가와 수난의 현장, III. 세번째 섹션, IV. 네번째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각 섹션마다 윤임상 교수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설명했다. 라크마 챔버 코랄은 “주 하나님 지

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며 사순절 찬양집회의 시작을 알렸으며, “십자가”와 찬양 “거기 너 있었는가”를 통해 청중을 수난의 현장으로 이끌었다.

찬양 “갯세마네의 기도”로 막을 연 첫 번

째 현장은 갯세마네 동산에서 인간 예수님의 번뇌를 묘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두 번째 현장은 빌라도 법정이었다. 찬양 “어린양의 침묵”을 통해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심문을 받으실 때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모습을 묘사했다.

세 번째 현장은 빌라도 법정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수난의 현장이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담았다.

마지막 현장인 ‘갈보리 십자가’에서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리지 않기 위해, 우리를 지옥의 형벌을 면케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주님의 고통을 전달했다.

세번째 섹션은 김에스더 라크마 부지휘자가 “인도와 보호”라는 주제로 인도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박지훈이 “예수”를 통해 부활을 찬양하며 복음의 완성을 이야기했으며, 마지막으로 “주의 기도”로 찬양 집회를 마무리했다. 김석민 기자

위브릿지교회 연합 기도회



교회들이 연합을 이루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연합기도회를 22일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원웨이침례교회(김지언 목사)에서 개최했다.

→ 1면 기사 <위브릿지 연합...>에 이어서 이번 연합기도회에는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조준민 목사), 방주교회(서민수 목사), 놀워장로교회(차권희 목사), 액츠글로벌교회(박은성 목사), 생명의 길교회(곽태규 목사), 라이트하우스 엘바인교회(왕상운 목

사), 원웨이침례교회(김지언 목사)의 성도들이 참여해서 다음날 자정까지 뜨겁게 찬양과 기도를 이어갔다. 이 교회들은 어려움 겪는 미자립 교회 지원 사업인 위 브릿지(We Bridge)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약물치료의 기초 지식 온라인 세미나

브릿지웨이 가정생활센터가 오는 4월 6일(토)과 7일(주일) 양일간 '상담사가 꼭 알아야 할 약물치료의 기초 지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의 강사로는 월드미션대학 상담심리학과 교수이자 한국복음주의 상담학회 감독상담사인 김경준 교수가 나선다.

주최측은 “미주 지역에 계신 상담사들에게 내담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우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브릿지웨이 가정생활센터에 소속된 브릿지웨이 가정상담소는 전 세계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세미나는 4월 6일(토) 오후 1~5시와 7일(주일) 오후 5~9시 양일에 걸쳐 열리며 하루를 선택해 참석할 수 있다.

세미나등록은 이메일(bridge-way.flc@gmail.com)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마감은 4월 2일, 회비는 50불, 재수강은 30불이다. 문의: 657-325-4018.



김경준 교수(월드미션대학)

센터메디컬 역류성 식도염 세미나

센터메디컬클리닉이 4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가든그로브 지점에서 역류성 식도염 세미나를 개최한다. 무료로 진행되며 시니어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세미나는 임유일 주치의가 진행하게 된다. 임유일 주치의는 센터메디컬 클

리닉의 가든그로브 지점 주치이다. 참여하는 모든 시니어들에게 푸짐한 선물도 증정한다. 주소: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지점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문의: (714) 904 - 1701 김민선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잠언 로펌

-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제 1회

센터메디컬그룹배



참가비 0!
참여자 모두에게
푸짐한 선물이 듬뿍!

3쿠션 시니어 당구대회

2024년 4월 10일(수) 오후 1시 NICE Q 당구장

(2877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신청조건

만 64세 이상의 시니어 (선착순 64명)

참가비

무료

상품

1등 - 65" TV / 2등 - 녹용홍삼세트 / 3, 4등 - 마사지건
그외에 다양하고 푸짐한 상품이 듬뿍!



1위 / TV



2위 / 녹용홍삼



3, 4위 / 마사지건



다양한 구디백 상품

이외에도 참가자 전원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문의 및 참가 신청 **714-904-1701**
(월~금 오전 8시반~오후 5시반)

센터메디컬그룹 오픈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2024년 4월 25일 (목) 오후 1시 샷건

California Country Club 1509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

참가비 \$150

* 참가비는 이웃을 섬기는 따뜻한 기금으로 사용되며,
참가자 성함으로 100% 전액 기부됩니다.

참가인원 120명 한정

(점심 도시락&디너 스테이크 식사 제공)

참가대상 만 64세 이상 시니어

참가문의 (714) 904-1701

(월-금 오전 8시반~오후 5시반)

상품

- 행운의 홀인원 첫 주인공 **\$10,000** 현금 지급
- 젬텍보석 다이아목걸이
- 아시아나 LA-한국 왕복 항공권
- 플라리스 피코웨이 레이저 \$1,200 상당
- 올림픽골프 골프 상품권, 골프용품
- 포크벨트 천연가족벨트
- 동원F&B 산삼배양근
- 조삼원 녹용홍삼
- 크리스탈스파 이용권
- 청운부페 \$50 식사권

영어권 성도들 위한 신천지 예방 세미나



신천지 예방 세미나가 5월 3일(금) 오후 7시 30분에 나성영락교회 EM제플실에서 개최된다. ©기독교일보

영어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천지 예방 세미나가 5월 3일(금) 오후 7시 30분 나성영락교회 EM 제플(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90031)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나성영락교회에서

후원하며, Finally Free 국제선교회와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가 주최하는 것으로 미주와 해외에서 신천지 등 이단 활동의 예방, 이단 신도 구출, 탈퇴자 회복 사역을 하고 있는 에스라 김 목사가 영어로 강의한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초청 대상은 고등학생 12학년, 대학생, 및 영어권 성도들이다. 현재 미주 신천지 각 지파의 신도 중 90%가 한인 2세 및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천지는 2세들에게 아주 공격적으로 포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전역의 대학생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신천지의 주요 포교 대상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신천지 탈퇴자들의 생생한 간증도 함께 제공된다.

미주 신천지는 1994년 처음 포교

를 시작한 이래, 2008년에는 388명, 2019년 4,264명, 그리고, 2023년말 현재 약 8,000명의 신도로 증가를 했다. 미주에는 신천지 12개 지파 중 5개 지파가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남가주 지역은 신천지 요한 지파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에 성전을 가지고 있다. (미주 신천지 요한 지파의 공식 명칭과 주소: 가주 시 온 교회 California Zion Church, 1250 N. Red Gum Street, Anaheim, CA92806)

강의를 진행할 에스라 김 목사는 “매주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과 가족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99%가 신천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99%가 신천

지를 모르고 있다. 예방 세미나를 한번만 들어도 신천지로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이단에 빠져 5년, 10년의 세월을 보낸 2세들이 너무 많다. 대학교에 들어가는 12학년 자녀, 대학생, 그리고 성인 2세들과 교회의 외국인 성도들이 이 세미나를 들을 수 있도록 꼭 보내달라”라며 이번 세미나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1. 신천지란 무엇인가? 2. 신천지 교주는 누구인가? 3. 그들은 무엇을 믿는가? 4. 미주와 LA 신천지 현황 5. 신천지 활동 및 포교 방법 6. 신천지의 핵심 교리 7. 비유풀이의 미혹 등에 대해 다룬다. 김민선 기자

문의: 에스라 김 목사 714-683-9894 (finallyfreeinternational@gmail.com)

→1면 기사 <미독교인의 동성결혼...>에 이어서

20세기에 '괴담'이 널리 보급되면서 마침내 결혼, 성, 자녀와 같은 오랫동안 하나로 이해되어온 연결이 끊어졌다. 결혼과 도덕적으로 연결된 성적 관계가 분리되는 유일한 방법은 새 생명의 선택과 자연스러운 결과와 관계가 없어져야만 했다. 그 결과, 혼외 성관계는 오명을 벗게 되었고, 더 나아가 성적 쾌락과 로맨스가 결혼의 본질적 특성이 아닌 신과 자녀를 대체하게 되었다.

할리우드도 공헌을 했다. 1980년대 최고의 시트콤들은 가족에 초점을 맞췄다. 90년대에는 섹스앤더시티(Sex and the City), 프렌즈(Friends)와 같은 쇼들이 이상화되고, 과도하게 성적이고, 로맨틱하

며, 헌신이 없는 세계를 묘사했다. 영화와 쇼들은 시청자들을 테디우스 윌리엄스(Thaddeus Williams) 박사가 말한 '자기 숭배(cult of self)'로 이끌었는데, 이는 “당신의 마음을 따르는 것”을 최고의 인생 목표로 제시한다. 이러한 이상에 취한 문화 속에서 동성애자 권리 운동의 어리석고 명백히 거짓된 슬로건인 “사랑은 사랑이다(love is love)”는 완전히 타당해 보였다.

디지털 기술은 불길게 더욱 지켰다. 인터넷, 소셜 미디어, 스마트폰이 결합된 '뉴 미디어'는 결혼과 성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가속화했다. 작가 사무엘 제임스(Samuel James)가 지적했듯이, 온라인 세계는 사용자를 우주의 중심에 놓고 “환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무한

한 자유”를 주었다. 이 힘은 쾌락과 로맨스를 결혼의 중심이 아닌 자아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성과 결혼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를 강화하고 독려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동성 결혼의 합법화는 불가피했다. 2015년의 이 기념비적인 판결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던 바를 반영했다. 결혼은 주로 로맨스, 쾌락, 자기실현에 관한 것이다. 자녀는 선택 사항일 뿐이다. 결혼이 본질적으로 출산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왜 결혼을 이성 두 사람에게만 한정하겠는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불가피한 다음 단계는 이것이다. (결혼을) 왜 두 사람으로만 제한하는가?

법 또한 교사의 역할을 한다. 합

법적인 것이 되면 사회적으로 더욱 용인된다. 오버게펠 판결은 문화적 신념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시켰다. 이것은 교회 안팎에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점점 더 수용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하는 대다수는 여전히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를 고수하지만, 그 수는 줄고 있다.

이는 동일한 주된 요인 때문이다. 많은 미국 기독교인들은 성과 결혼, 자녀 사이의 내재적 연관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대부분은 디지털 기술을 다른 문화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오버게펠 판결 이후 시대에 살고 있으며, 잘못된 결정이 잘못된 생각을 교육하고 있다.

교회가 결혼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문화의 형편없는 부도덕함 속에서 결혼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바울은 이러한 우려를 서신에서 다루며, 신자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거부하고, 그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촉구했다. 그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에 기초한 결혼관을 호소했다. 결혼 관계는 세상의 구조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대체되거나 재정의될 수 없다. 사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신성한 신비이다. 세상과 교회의 생명을 위해,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계속 신성하게 여겨야 한다. 김유진 기자



한인타운 시니어센터 두번째 학기 접수가 시작됐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 새벽부터 복새동

한인타운 시니어 & 커뮤니티 센터 (이사장 신영신, 이하 시니어센터)는 2024학년도 두 번째(4~6월) 학기 프로그램 접수를 3월 26일(화)부터 28(목)까지 받았다. 접수 첫 날에만 265명이 신청했다.

시니어센터 앞에는 새벽 3시 40분부터 신청자가 몰려들기 시작해 AI, 댄스, 스마트폰 교실, 스트레칭, 종이 접기, 근력운동, 스케치 클래스, 피아노 기초 과목은 오전에 이미 마감됐다.

이번 학기에도 번호표 1번은 이금순(73세, LA거주) 씨이다. 집에서 새벽에 출발해 3:40am 도착했다는 이

씨는 “한인타운 노인들에게 시니어 센터는 자랑이자 사랑방”이라며, “매 학기마다 새 과목을 늘려 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에는 인공지능(AI), 뱀킨아트, 킷공예, 경제특강 등 4개 과목이 신설됐다. 인공지능(AI) 클래스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초적인 이론에서 시작해 실습까지 병행한다.

뱀킨아트와 킷공예는 노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 준비됐다. 경제특강은 경제분야 전문가가 분야별 궁금증을 풀어주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례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타운 내 미용실 대표들이 재능기부 참여로 노인들 머리를 깎아 드리는 헤어커트가 1년 만에 다시 재개된다. 또한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회장 이태한) 주관으로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법률상담과, 매주 수요일 소설위커 1대 1 상담, 그리고, 매주 화- 목요일 변호사 1대 1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을 위한 나눔 교실과, 청소년을 위한 STEM교실도 계속 진행된다.

장소: 시니어센터 1층 (965 S. Normandie Ave., L.A, CA) 문의: (213) 387- 7733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AATS 정회원
- 기독교대학교(ABHE),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해외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정회원
- 온-오프라인 통합 블랜디드 수업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금도
- 학자금 지원 (Col & Pell Grants)

- 학부 |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 석사 | 목회학, 목회학 철학집중과정, 목회학 교향집중과정,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교양학, 중국어 신학, English M.Div.
- 박사 | 목회학, 선교학, 선교학철학, 상담심리학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usa.edu
주소: 15605 Carma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학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laurahell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112/admin.kor@itsia.edu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4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 ITC :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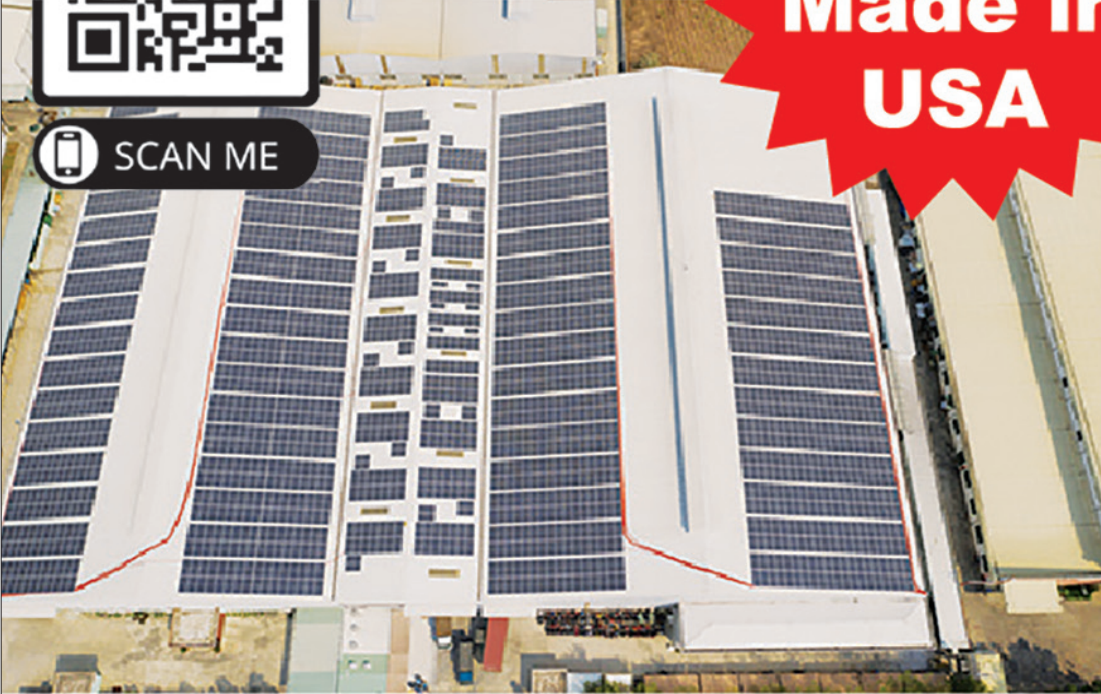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SCAN ME



Lic#854389



BTS Solar Design Inc. T. 213-500-8000



ADU 전문

리|모|델|링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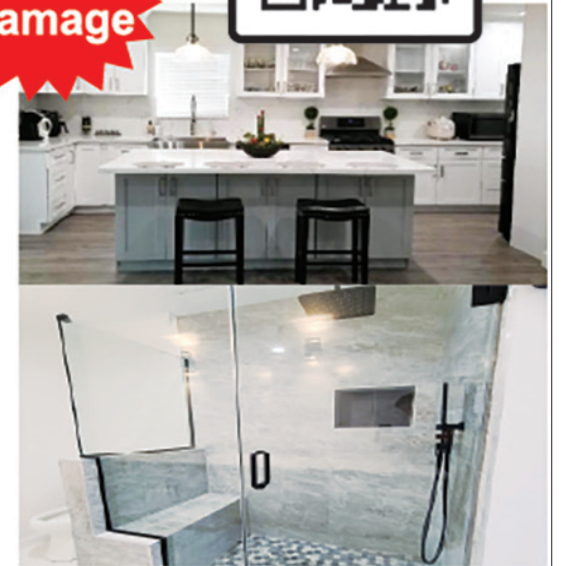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 집수리 일체 |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Water
Damage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K-Urban Builders In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예수 부활하셨네

LA예수마을교회

“기도로 깨어 있는 교회” (골4:2)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1:30AM
수요예배 10:00AM
새벽예배 5:30AM



정인호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801 S. Wilton Pl. LA, CA 90005
T. (213)364-0515 www.lajvc.webchurch.kr



예수 부활하셨네

웨스트힐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 여노인팅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주일~금)
오전 6:00(토)
EM예배(1부) 오전 9:00
EM예배(2부) 오전 11:00
한어청년부 주일 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884-2391

예수 부활하셨네

나성한미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토요무릎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킨더,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홍중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444-0058 / www.lahanmichurch.com

예수 부활하셨네

라구나힐스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30
중보기도 오전 9:30(목)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우즈빌리지의 중심에서 27년. 예배와 선교와 장학사업에 활발한 교회. 2024년 장학생 모집. 교회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주소 및 전화

24442 Moulton Pkw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http://www.lagunachurch.com

예수 부활하셨네

얼바인온누리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예수 부활하셨네

오레곤 벨엘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8:1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청년부예배 주일 오후 2:00
수요온라인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이돈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391 SW Blanton St. Beaverton, OR 97078
T. (503) 649-3990

홍콩, 새 국가보안법 통과... 국제사회 “인권 퇴행적”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거리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 ©Unsplash

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이나 내란죄에 최고 중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제23조)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으로,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으며, 오는 23일부터 발효된다. 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서 최고 중신형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협에 빠뜨릴 만큼 무모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반란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주민들이 외국 세력과 결탁해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국 세력에 관한 광범위한 정의에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됐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자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해당 법안이 홍콩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내고 “많은 조항이 국제 인권법과 양립할 수 없다는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입법부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간섭 및 국가 기밀과 관련된 이 법안의 조항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철저한 논의의 과정과 의미 있는 협의도 없이 통과된 것은, 홍콩의 인권 보호에 있어 퇴행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고위급 대표도 성명을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 채택으로 근본적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에 대한 침해가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보렐 대표는 “외국의 간섭 및 국가 기밀에 대한 포괄적 조항과 광범위한 정의가 특히 우려스럽다”며 “해당 법이 홍콩에 있는 EU 대표부와 회원국들의 총영사관 업무는 물론 EU 시민, 단체, 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 홍콩의 장기적인 매력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러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기독교 지도자들 살해·실종돼”



©Pexels/Denys Oliinykov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살해되고 고문당하고 실종되고 있다고 한 기독교 종교자유 단체가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릴리즈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 CEO인 폴 로빈슨(Paul Robinson)은 “푸틴 대통령이 5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파트너들은 교회에 대한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라고 말했다. 파트너들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정교회 신부 스테판 포돌차크(59)가 러시아 점령지 헤르손의 칼란차크 거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그의 몸에는 고문 흔적이 보였다고 보고했다. 포돌차크 신부는 발견되기 이틀 전 러시아 내무부 산하 극단주의 대응 센터 소속 요원으로 추정되는 조직에 의해 붙잡혀 끌려갔다고 한다.

포럼18에 따르면 그는 납치 및 살해되기 전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떠나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에 합류하라는 압력에 저항했다. 릴리즈 인터내셔널은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 정교회를 제외한 다른 종파들이 극단주의로 간주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오순절 교회 집사인 아나톨리 프로콥추크(Anatoly Prokopchuk)와 그의 아들 알렉산드르(Aleksandr)가 지난 11

월 헤르손(Kherson)에서 납치되어 총살됐다. 포럼18은 “러시아 점령군은 러시아 침공 후 다른 우크라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납치하고 고문하고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시민권 취득을 거부한 후 실종되거나 러시아로 추방되는 기독교인도 있었다.

CT는 “그러나 희망의 징후도 있다. 헤르손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이는 복음에 대한 갈망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로빈슨 목사는 “두려움, 불안, 억압에 직면해 복음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교회가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목숨을 바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릴리즈 인터내셔널의 한 동료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여들고 그리스도께로 개종한다. 그들은 전쟁의 불길 속에서 유일한 희망을 찾는다”고 했다. 릴리즈 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 내 남아 있는 기독교인과 다른 곳으로 대피한 기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로빈슨 대표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억압이 마음을 집중시키고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발견한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차세대) 오전 9:15 새벽예배(물론인 Only) 오전 5시
3부예배(차세대)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2세를 치유하며, 선교를 영감시키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386-2233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살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예배 오전 7:30 분당 OMC 종교동부 오전 11:30 2교관 4층
주일예배 오전 9:30 분당 OMC소망부 오전 11:30 2교관 4층
주일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line)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2교관 1층 수요종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MB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리타는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오전 10:55 수요일예배 오후 7:30(온라인)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3412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4952 / www.joohy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양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아,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 오전 10:00 허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현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셔(Call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2:00
영양아/유년부/유아부/초등부/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nt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8: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ncn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주재: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주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A)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회교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삼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장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분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생명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6:30
 2부예배 오전 9:1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급함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찬양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월-토) 새벽 5:30
 (평일학교부)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혜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행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미국인 2명 중 1명 “사회 내 종교 역할 축소 우려”



©Nik Shuliahin/ Unsplash

미국 성인 대다수가 종교가 공공 생활에서 영향력을 잃고 있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새로운 연구에서 밝혀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성인 12,693명을 대상으로 2월 13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미국인들은 여러 면에서 종교와 관련된 긍정적인 영향을 갈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종교적인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신념 여부가 주류 문화와 충돌한다고 응답했다. 퓨 연구진인 마이클 로볼로, 그레고리 A. 스미스 및 조너선 에번스는 “전반적으로 미국 생활에서 종교의 궤적에 대한 불안 징후가 널리 퍼져있다. 이 불안은 종교적인 미국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많은 종교적 및 비종교적 미국인들은 자신의 신념이 주류 문화, 주변 사람들, 정치적 스펙트럼의 다른 측면과 충돌한다고 느낀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 연구는 대중이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신앙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다. 이는 최근 1039명의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의 응답을 기반으로 한 인피니티 콘셉트(Infinity Concepts) 보고서의 뒤를 이어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대다수의 복음주의자들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공공생활에 깊이 관여해야 할 문제로 ‘낙태’와 ‘공공적인 신앙 표현의 허용’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0%가 “종교의 역할이 미국 사회에서 줄어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전 조사에서 나타난 정서만큼 높은 비율이다. 종교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고 답한 대부분의 미국인은 종교의 궤적에 만족하지 않으며, 전체 미국 성인 중 49%는 이러한 현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종교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한 8%만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종교

합하면, 미국 성인의 약 57%는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 중 상당 부분은 미국 성인들 사이에 종교적 영향력의 감소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미국 성인의 약 48%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미국의 주류 문화 사이에 “상당히” 또는 “일부” 충돌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0년 42%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또 다른 29%는 자신을 “종교적 소수자”로 생각하며, 이는 2020년의 24%보다 증가했다. 또한 미국인의 41%는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할 경우 종교에 대한 토론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2019년 33%에서 증가한 결과이다.

반면, 종교적으로 자신을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는 ‘특별히 없음’으로 밝힌 성인 중 약 72%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정부와 공립학교에서 종교를 통제하려는 데까지 너무 나갔다”고 말했다. 또한 한 사회에서 종교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토론에서 공화당원들이 민주당원들보다 정부와 공공생활에서 종교적 영향력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원 및 공화당 성향의 무소속 응답자 중 42%는 “성경과 국민의 뜻이 충돌할 때 성경이 국민의 뜻보다 미국 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원 및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응답자는 16%만이 이 입장을 지지했다. 공화당원과 공화당 성향 무소속 응답자의 21%는 “연방 정부가 기독교를 미국의 공식 종교로 선언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민주당원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응답자는 7%만이 이 입장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94%는 개인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대통령을 갖는 것이 “매우” 또는 “일부”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과반수(64%)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옹호하는 대통령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유진 기자

미국 낙태율, 10년만에 최고치 경신 ‘약물 낙태 쉬운 탕’ 지적도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 내 낙태 건수는 지난해 2020년 대비 10% 증가해 10년에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데이터는 구트마허가 3년마다 실시하는 낙태 제공 조사와는 다른 월간 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이 기관은 2023년 미국에서 약 102만 6690건의 낙태 수술이 발생했다고 추산했으며, 이는 2020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이다. 더구나 화학적 낙태 비율은 2020년 53%에서 2023년 63%로 증가했다. 연구는 또한 “전면적 낙태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의 모든 주에서 낙태 건수가 2020년 총계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구트마허 연구소는 “전국적인 10% 증가는 여러 측면에서 의료 시스템, 제공자 및 지원 네트워크가 특정 주에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했음을 덜 반영한다”면서 “전면 금지가 없는 주에서는 2023년에 낙태가 2020년 대비 25%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가장 급격한 증가는 (낙태가) 금지된 주와 인접한 주에서 나타났다”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낙태가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트마허 수석 연구원인 레이첼 존스는 성명에서 “주정부들이 낙태 제한을 통과 시킴으로써, 직접적 낙태를 선호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화학적 낙태가 가장 실행 가능하거나, 유일한 낙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존스는 “따라서 약물 낙태 증가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아 생명을 옹호하는 샬롯 로지어 연구소(Charlotte Lozier Institute)의 수석 부교수이자, 미국 가톨릭 대학교의 사회 연구 조교수인 마이클 뉴는 지난 19일 내셔널 리뷰지에 최신 자료에 대한 논평을 실었다. 뉴에 따르면, 낙태율 증가 추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주정부가 법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하기 5년 전인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구트마허가 직접 시인한 바에 따르면, 월간 낙태 제공 조사의 계산은 ‘더 적은 데이터 포트폴리오’에 기반했으며, 낙태 발생률에 대한 더 빠른 계산을 위해 고안되었다”며 “이를 감안할 때, 2023년 낙태 추정치는 구트마허의 이전 연간 낙태 추정치만큼 신뢰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뉴는 일부 언론 매체들이 이 추정치를 사용해 낙태 금지법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데이터를 액면 그대로 볼 때, 화학적 낙태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가 낙태율 증가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美 웨스트버지니아·유타주 종교 자유 보호 법안 통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유타주는 종교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했으며, 각 법안은 주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최근 상원 법안 503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공립 대학 캠퍼스에서 결사의 자유와 학생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2월 27일(이하 현지시간) 공화당 다수인 웨스트버지니아 상원에서 31대 1로 통과됐다. 지난 3월 9일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88대 10으로 통과됐다. 주로 공화당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 법안은 주 의회 양원에서 다양한 수준의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대부분의 모든 상원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공화당에 합류했지만, 하원 민주당 의원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주립 고등교육 기관은 주정부가 다른 학생 조직에 제공한 혜택이나 특권을 모든 학생에게 공개하는 종교적, 정치적 또는 이념적 학생 조직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기존 웨스트 버지니아 법안을 개정한다. 웨스트버지니아 법안의 보호 조항은 “학생 단체가 모든 학생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없애기 위해 개정되었다.

미국 대법원에서 여러 종교의 자유 사건을 성공적으로 주장해온 법률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법무부가 이 법안을 승인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ADF 수석고문이자 ADF 공공정책 센터 소장인 매트 샤프(Matt Sharp)는 “대학은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장려해야지 이를 폐쇄해서는 안 된다”라며 “여기에는 신념 기반 학생 조직이 조직의 사명과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당 클럽이 공화당원을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환경 클럽이 북극 시추를 지지하는 회원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종교 클럽은 지도자와 회원에게 종교적 신념과 가치를 고수하도록 자유롭게 요구해야 한다. 이 중요한 법안은 특히 공립 대학의 학생 그룹이 지도자와 회원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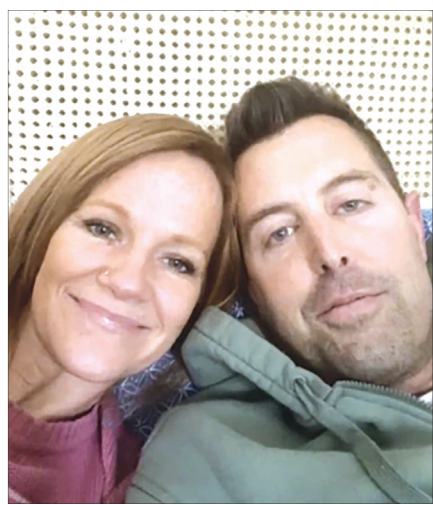
이번 조치는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여야 하고 신앙 선언문을 고수하도록 요구하는 일부 기독교 캠퍼스 단체에 대해 대학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노력이 성공하면서 나왔다.

한편 유타주에서는 스펜서 콕스 공화당 주지사가 상원 법안 150를 승인했다.

이 법안은 ‘종교 행사 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기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방 종교 자유 회복법의 보호를 주법에 명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미경 기자

CCM 가수 제레미 캠프 “심장수술 후 하나님과 더욱 친밀”



아내 에디와 제레미 캠프. ©인스타그램

미국의 유명 CCM 팝 가수 제레미 캠프(Jeremy Camp)가 최근에 받은 심장수술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증거이며, 이 시련이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켰다고 고백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캠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이번 주에 투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방세동(AFib,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빠르게 박동하는 부정맥의 한 형태)을 치료하는 수술 후 불과 며칠 만에 그의 아내 에디(Adie)와 함께 경험을 고백했다.

올해로 46세인 그는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늘 확신과 내 힘으로 일하려고 항상 싸워왔다. 자신을 건강하고 강건한 사람으로 여기며 ‘나는 이걸 해낼 수 있어, 난 영원히 건강할 거야’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이것은 그저 결함일 뿐이었다. 내가 했던 것도 아니고 원인이 아닌 일이 일어났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작은 통제력마저 낱알이 벗겨내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분을 더 많이 의지하게 하시는 것 같다”라며 “이것은 정말 풍요롭고, 예수님께로 훨씬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었다”고 했다.

부부는 수년 동안 제레미의 심장 박동

이 분당 최대 230회에 이르는 불규칙한 상태를 겪었고, 이를 통해 그의 심장 상태를 알게 되었다. 제레미는 비침습적인 심장수술을 통해 (피부를 관통하거나 신체의 어떤 구멍을 통과하지 않는 치료를 의미) 전통적인 절개 수술을 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제레미는 2023년에 비침습적 심장수술을 받았지만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레미는 “정말 빠르게 뛰는 부정맥을 앓았고, 작년에 심장수술을 받았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며 “4주 전에 다시 부정맥이 시작되었다. 심장이 분당 230회씩 30분 동안 하루에 두 번씩 미치도록 빠르게 뛰었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초,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콘서트를 하던 중 이 증상을 겪었다고 말했다. 제레미는 “정말 불운한 일이었다. 무대에서 일찍 내려와야 했고, 그들은 나를 위해 의료진을 대기시켜 두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우리는 심지어 아무 말도 안 할까 고민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왜 안될까 생각했다. 가족으로서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여러분은 함께 모이는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아내인 에디는 이번 여정이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안겼는지 전하며, 지역사회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모여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서 진정한 보살핌과 배려를 느꼈다”고 했다.

부부는 의료진의 승인을 받아 다음 주에 극장 투어(The Theater Tour)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레미는 최근 수년간 그가 겪은 증상이 힘들었지만, 이는 여러 곡의 소재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에디는 “제레미의 앨범명이 ‘더피어 워터스’(Deeper Waters: 더 깊은 물)라는 것은 농담이 아니다.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 곳이며, 여러모로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곳이라고 정말로 느낀다”라고 간증했다.

김유진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구경모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새벽기도(화-토) 오후 8:30 토요일새벽기도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광일(월-금) 06: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일예배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김지성 담임목사

주일에 오전 11:00 화요일오전 10: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한인필그림교회

2518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714)853-4030(담임목사)

김상현 담임목사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전 12:30 EM 오후 12:30 사랑부 오전 11: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고 내 길에 빛이나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초등부 오전 11:00

종교동부(아기돌) 오전 11:00 영아부예배(만용체)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Youth 금요일(월) 오후 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8:00 AM 주일 2부 9:30 AM 주일 3부 11:15 AM 수요기도회 7:30 PM

영아유아 유치부 11:15 AM 종교동부 9:30 AM/11:15 AM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com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9: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새벽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8:00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밤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4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베이커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주일 오전 11:30 주일 4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17175 W Quen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움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정공필 담임목사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jrho@hotmail.com

조용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이병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u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박은호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ojchurch.com

임명진 담임목사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inex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수습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신비의 침술, 놀라운 속담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한의원 LA 323.733.8814 OC 714.522.8818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탕을 체험해 보십시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찜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 혈액순환 개선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함유 \$8.80
D3 5000 IU 선사하는 비타민 D3는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함유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결합,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합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교협 회장 최영봉 목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인류 최대의 관심사였고, 인간의 이

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의 부활 신앙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15:17-19) 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물한 소식들이 연일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맞는 부활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맞볼 수 없

는 진정한 기쁨과 참된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4:6)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과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므로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얻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남가주 모든 한인들에게 전하며 잠평화와 기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OC교협 회장 심상은 목사

우리 인생입니다. 잠시 보였다고는 안개와도 같은 인생,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고 그 다음이 없다면 이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있을까요?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정처 없이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이 있다고 예수님은 부활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 26).

이 생명의 말씀이 가슴으로 믿어지기만 하면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876,000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너무나 짧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죄의 값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생길을 헤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절대 헛되지 않고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더욱더 남은 인생 더욱 굳세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美 목사,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의 전제조건"

최근 주일 설교서 대체신학 비판

미국 캘리포니아주 치노힐스 갈보리 채플(Calvary Chapel Chino Hills)의 잭 힙스(Jack Hibbs) 목사가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의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과의 관계를 끝내셨다는 이른바 '대체신학'(Replacement Theology)을 비판하는 설교를 전했다.

대체신학은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획을 지닌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론이다.

힙스 목사는 최근 '진원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 시리즈로 전한 주일 설교 시리즈의 두번째 설교에서 성경 예언의 렌즈를 통해 이스라엘의 현대 국가를 봤다.

힙스 목사는 "이스라엘이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그것은 그들이 영원히 상실된 증거라고 말하는 목회자들과 성경교사들이 있다"며 "친구들이여, 그것은 잘못된 교리다. '국가로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모든 사역, 목사, 단체는 순진하고 단순한 이단 교리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스라엘의 국가 지위는 재림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성경의 하나님은 시온주의자이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건국 전쟁> 시애틀 상영, 매진 행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업적과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시애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24일 사우스센터 AMC극장의 두 차례 상영된 <건국전쟁>은 30석 가까운 좌석이 모두 매진됐다.

미주 한인 1세대와 차세대 모두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영여 자막이 준비됐으며,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미국인 대학원생이 참석해 한미동맹의 역사를 되짚어 보기도 했다. 영화 상영이 마친 후에는 참석자들은 애국가를 함께 불렀다.

영화 <건국전쟁> 시애틀 상영은 한미동맹USA 재단(시애틀지역 케이 전 회장)과 AKUS 한미연합회(시애틀 이영운 회장)가 공동주최하고 AKUS, 한미동맹USA재단, 광

역시애틀한인회(회장 김원준·이사장 나은숙)가 주관을 맡았다. 또 이승만 기념사업회와 자유민주총련 시애틀 지회가 후원했다.

AKUS 한미연합회 시애틀 이영운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을 바로 알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춰 이해하는 것이 옳다. 특히 교포 차세대가 그분의 업적을 잘 깨우쳐서 앞으로 이 땅에서 소수민족이지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미주류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가게 돕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영화 <건국전쟁>의 상영 취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미주 한인 교포 사회는 건설적인 비전을 갖고,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공과 실을 알되, 공을 더 넓히고 이해와 아량으로 인정할 때에

야 비로소 차세대에게 역사적 물 모델들을 선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 <건국 전쟁> 상영과 함께 광역시애틀한인회 회장인 김원준 작가가 영화관 앞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한국전쟁, DMZ 등을 담아 '한국 역사'(Korean History)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사진 전시회도 많은 이들의 발길을 멈춰 세웠다.

한편 영화 <건국 전쟁>은 오는 30일(토) 오후 12시와 오후 3시, 린우드 AMC극장에서 두 차례 더 상영 된다. 현장에서는 티켓 구매를 할 수 없으며, 별도로 마련된 티켓 예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건국 전쟁> 시애틀 상영 문의는 이영운 회장(509-998-1287), 케이 전 회장(206-898-4915), 김원준 회장(206-669-2578)으로 할 수 있다.

신앙문답

고난주간, 성경의 기록과 예수님의 행적은?



박진호 목사
멤피스커비우즈한인교회

[질문] 성경 사복음서에서 어느 부분이 고난주간을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사복음서마다 고난주간을 다루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일별로 예수님의 행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먼저 고난주간 기사는 마태복음에는 21-27(28)장, 마가는 11-15(16)장, 누가는 19:28-23(24)장, 요한은 12:12-19-(20,21)장까지입니다. 괄호 안은 부활 이후 승천까지의 내용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고난주간 기사만 마태복음에선 전제 28장에서 7장이거나(7/28), 마가는 5/16, 누가는 5/24, 요한은 9/21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생애 삼 년간은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등 각 지방을 돌면서 소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하셨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엔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곳에서 유대민족 전체를 상대로 당신의 가르침과 사역의 결실을 내리는 기간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특징을 물어오셨는데 상기처럼 아주 간단하게 그 길이만 분석해도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후의 행적을 요한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했던 성령의 오심에 관한 강화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당부를 자세하게 기록했고, 또 부활 후에는 당신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질문했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한 특유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거의 같은 내용을 같은 순서로 기록하고 있는 세 복음서와는 다른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공관(共觀, Synoptic)복음으로, 요한복음은 그와 구별하여 제사(第四)복음으로 불립니다.

복음서별 고난주간 기록의 특징

상기처럼 각 사건 별 기록만 비교해 봐도 복음서 별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의 부인사건은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함의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떤 의인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예일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일은 요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이 기록하지 못하는 다락방에서의 강화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요한은 마지막 만찬과 이후의 주님의 강론과 기도예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들은 세복음서 저자들에게 의해서 이미 기록되었기에 구태여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의 저작 년도를 공관복음이 다 완성되어 교인들 사이에 회람되고 난 후인 AD 85-90년경으로 봅니다.

유대의 자살과 열 처녀의 비유와 무덤에 파수군을 붙였다는 사실은 마태만, 또 헤롯에게 재판 받은 사실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 몇을 제외하고는 고난 주간 기록은 체포이후 재판과 처형의 과정을 포함하여 공관복음서가 일치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마지막 가르침을 더 명확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당신의 죽음은 당시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직접 목격했던 너무나 생생했던 사건이기에 네복음서 모두에 세밀하고도 일치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각 저자의 특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고난주간 기사만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서 그러합니다. 이는 저자마다 자신의 복음서를 저작한 의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하신 메시아임을 강조한 책입니다. 유대인 신자와 헬라인 신자를 하나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하였기에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에 대한 자료가 가장 많으며 특별히 주님의 설교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힘 있고 간결한 문체로 주님의 교훈보다는 사역중심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로마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구약 인용이나 유대의 관습과 문화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능력 있는 종으로서 예수를 강조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 신자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대변되는 지성적인 이방인을 대상으로 예수의 생애와 사상을 알기 쉽게 표현한 책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고 불신자들의 공격을 변호하는 목적도 겸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고도 유일한 인자로서의 예수가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실천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헬라사조에 익숙한 독자에게 유대인들과의 대화식 논증의 방식을 빌어서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정체성을 변증한 책입니다. 사역과 설교 위주로 기록되어진 공관복음서를 보충하기 위하여 신학적 해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

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난주일 전반의 가르침과 사건은 과감하게 다 생략하고 다락방 강화에 주력한 이유입니다. 또 7가지 이적 기사를 세밀하게 고안한 의미와 순서에 따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복음서 고유의 특징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갖고서 상기에 열거한 고난주간의 기록들을 상호 비교해보면 더 구체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 요일별 주님의 행적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눅21:37,38)

고난주간 전반을 정리하는 누가의 상기 기록을 보면 목요일 오후까지는 주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요일별로 따지자면 종려주일에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그 후(월-목요일 오후)에는 주로 성전에서 바리새와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였고, 또 종말과 재림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요일 별로 어떤 일을 행했고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만찬 중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논쟁을 벌이자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족(洗足)목요일(Maundy Thursday, Holy Thursday)이라고 칭합니다. 식사 중에 성찬예식을 제정하셨고, 유다가 떠난 후에 남은 11제자와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만찬 중에 유대의 배반과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을 예언하셨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고별강화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만찬과 가르침을 끝낸 늦은 밤에 평소 습관대로 찬양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겿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세 번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땀이 핏방울 같았다고 기록하듯이 엄청난 중압감으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슬픔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난 금요일 한 밤중에 유다와 대제사장의 하숙들이 주님을 체포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새벽 1시부터 동틀 때까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의회 앞에서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날이 새기 직전 베드로는 세 번 스승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그윽이 쳐다보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동틀 무렵 하나님을 모욕한 죄로 사형언도를 받았고 눈을 가린 채 곁에 있던 관원들로부터 심한 희롱과 구타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이른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내졌고 그 사이 유다는 목매어 자살합니다. 빌라도는 단죄하지 않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냈으나, 헤롯도 단죄하지 않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빌라도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유대인의 압박에 못 이겨서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지난밤부터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한 주님은 약 4킬로미터를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온갖 수모와 매질을 당했으며 심신이 모두 이미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주님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멜 깁슨의 영화에 실감나게 묘사된 그대로입니다.) 피투성이로 거의 실신 상태에 이른 주님에게 군병들이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운 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이고 짐 뺄으며 조롱했습니다.

성 밖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의 조립형 형틀 중 가로대를 두 어깨에 짊어지게 해서 로마군 부대와 함께 행진했습니다. 십자가 전체는 약 136 kg, 가로대만 40-60 kg이 있었습니다. 행진도중 주님이 쓰러지자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 언덕 길을 “슬픔의 길(Via Dolorosa)”라고 부릅니다.

금요일 오전 9시경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겹옷과 속옷을 예비 뽑아 나눠가집니다. 주님은 벌거벗기는 수치까지 당하여 인간의 죄만 아니라 모든 수치마저 대신 감당했습니다. (이에 관해선 거꾸로 읽는 성경 사이트의 #187 “십자가 죽음에 숨겨져 있는 제 2의 비밀 (행8:26-40)”의 글을 참조 바랍니다.)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6시간 달려 오다가 성전에서 어린 양을 죽이는 시간인 오후 세시에 “엘리 엘리 사박다니”와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세시까지의 흑암이 온 성을 덮었고, 운명하신 직후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속에서 신자들이 부활했으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예비일인 금요일 해질 녘에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이 양을 요구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내리어 새로 마련한 자기들 가족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아침에 여인들이 시체에 향품을 넣으려고 무덤에 오다가 빈 무덤임을 발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필두로 제자들과 오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무덤을 깨트리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죄의 삯인 사망을 이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 은혜를 믿는 자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행적을 날짜별로 추적해서 묵상해보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을 닮아가기를 노력하지 않고 또 그분이 맡기신 직분을 실제로 충성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감상에 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주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공적신학 실천센터


Center for Public Theology and Practice



류준영 목사


www.pubtheo.org
T.(310)738-0485

예수 부활하셨네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총회장 박진호 목사

총 회 장 : 진건호
부총회장 : 서사라
총 무 : 김선광
부 총 무 : 이현욱
서 기 : 안선신
부 서 기 : 김정환
회록서기 : 조은혜
회 록 부 서 기 : 이영근
회 계 : 안정희
부 회 계 : 김광진

감 사 : 강성수, 엘리야김
LA노회장 : 엘리야김
남부노회장 : 김선광

이사회
의 장 : 김인철
사무총장 : 엘리야김
이 사 : 강성수, 주재임, 박정희, 박문석, 진건호

교단가입문의 213-272-6031

홈쇼핑월드

웹사이트 주소
hswus.com

확장이전기념 마지막 무빙세일!!

세일 기간 | 03.29(금) - 04.01(월)

바디프랜드 팔콘 로봇 마사지체어

독점계약체결 기념 가격파괴 세일!!

바디프랜드 팔콘 로봇 마사지체어

홈쇼핑월드 독점
특별세일 가격!!

\$4490.00
(일시불)



WOW

초대박 물지마 무빙세일!!

루네즈
워시오프
얼굴팩
150ml
~~\$19.99~~
~~\$16.99~~
\$3.99



옛날
짱아찌
각각
명이나물, 마늘쫑, 샐러리, 깻잎, 고추
~~\$9.99~~
\$4.99



*5병 한정

방앗간
전통
참기름
6종
~~\$24.99~~
\$12.99



광동제약
루테인
30캡슐
~~\$69.00~~
~~\$39.00~~
\$15.00



김정문
알로에
썬쿠션
\$19.99



고려은단
비타민C
1000mg
~~\$39.99~~
\$19.99



한국 치과협회
아쿠아
워터픽
~~\$89.99~~
\$29.99



조성아
대왕쿠션
(리필포함)
1호, 2호
~~\$69.99~~
\$39.99



슬표
여주담은
동충하초 진액
1개월분
~~\$89.99~~
\$39.99



강화홍삼
6년근
발효홍삼
250g (2병 세트)
~~\$129.00~~
\$49.00



강화홍삼
6년근
발효홍삼
250g (4병 세트)
~~\$249.00~~
\$89.00



민중기 칼럼

후각 상실과 부활의 소망



민중기 목사 KCMUSA 이사장

노년의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며, "내가 이제 간을 맞출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눈에 무슨 거미줄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노령에 따르는 증상의 시작인 것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얼마 전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지에 들렀다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열대지방에서 감기에 걸리는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미국에 복귀하자마자,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3년 중에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

던 저이지만, 혹 주변에 민폐가 될까 봐 속히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의 독감으로 후각 상실이 왔습니다.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셔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문득 부모님의 하소연이 생각났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이제야 느껴지고, 늦게나마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과 연민이 내면으로부터 차올랐습니다.

압살롬의 시대에 다윗에게 목숨을 바치기까지 섬겼던 바르실래가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반역자를 물리치고 그에게 "궁궐에 들어가서 같이 살자"고 청할 때, 그는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팔십 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삼 19:35). 그는 왕의 호의를 돌려 아들 김함에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바르실래는 고령으로 감각이 점차 약화, 상실되었으니, 부모의 무덤을 지키리라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나이 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의 걸 사람은 날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 묵화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 중의 하나는 "시간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는 명제입니다. 많은 성도를 돌아볼 때, 육체의 기능이 점차 약화, 상실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신앙 인격이나 영적 기능은 계속 고양될 수 있다고 소망을 가져봅니다.

노령의 증상, 곧 기력 저하와 쇠약해짐을 반전시키려고,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도모합니다. 저도 후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는데, 제 발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후각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건강하게 묵화하면서 살았던 저이지만, 이제 우리 몸도 조금씩 수선하면서 살아야 하는 엄혹한 현실에 미소를 지으며 수납합니다.

아마 미래에 정신이나 신체의 기능이 한창 젊었을 때의 수준을 되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건강만을 제 남은 삶의 목표로

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 이후 신체적 완성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나의 오감(五感), 곧 시각, 청각과 후각, 미각과 촉각이 완벽하게 회복됨을 믿으며 안도감을 가집니다. 이제 "안경을 벗겠구나, 잠자리와 별세의 날개 치는 소리까지 들겠구나, 사과의 냄새와 맛을 즐기며 오렌지 동산의 향기에 취하리라, 개울가 다테피쉬의 간지럼을 느끼며,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노래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물론 소시민적 회복을 훨씬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은 우리의 영육 간의 새로움은 물론이고, 하나님 관계와 인간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권위, 능력과 지혜를 직접 누릴 때, 우리의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죄의 소욕과 오류가 흩어져 사라질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나뉘지 않은 온전함, 사람의 공동체가 더 이상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섬기는 세에덴,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건강한 가족이 되어 서로 섬기게 될 새 예루살렘이 우리 부활의 미래일 것입니다.

영혼을 살피우는 신앙 명시 산책

내 믿음의 부활절 / 유안진

내 믿음의 부활절 / 유안진

지난겨울
얼어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 포기도
거둬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이 시는 시인이자 수필가 유안진의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는 시입니다. 유안진은 박목월 시인의 추천으로 등단하였습니다.

유안진을 수필가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란지교를 꿈꾸며>라는 수필 때문입니다. 1986년 이향자, 신달자 시인과 함께 펴낸 수필집 <지란지교를 꿈꾸며>에 실린 수필입니다. 이 작품으로 유안진은 일약 대중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의 장르를 넘나드는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으며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유려한 문체와 치밀한 구성 방식이 돋보인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시인으로 유안진은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인생을 꿰 찢어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섬세한 시어로 유명한 유안진 시인은 천주교 신자(세례명 클라라)입니다. 유안진은 몇 편의 신앙시를 남겼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인의 고백과 간증이 담긴 시들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시가 많습니다. 유안진의 <내 믿음의 부활절>은 과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아닌 자신의 믿음이 되살아 나는 믿음의 부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의 후반인 4연 5연 6연의 마지막이 <싶습니다>입니다. 3연의 반복으로 시인의 소원이 분명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부터 3연은 부활이 필요한 존재들이 누리는 부활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얼어붙은 그루터기,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 풀포기, 그리고 죽음... 모두 부활이 필요합니다. 봄을 통해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보여 주시는 주님께서 친히 부활의 증거가 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부활절을 얘기하며 봄날 식물의 소생이나 계란의 부화를 말하는 것은 부활의 왜곡입니다. 사망을 짓밟고 부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데 인간의 저질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부활을 설명하려고, 위대한 부활을 자연적 사건과 부활을 동격으로 낮추어 버립니다. 부활을 설명하려고 부활의 능력과 의미를 격하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대 부활절의 역설과 아이러니입니다.

왜곡된 부활은 우리를 부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부활절을 수십 년 맞아도 부활을 사모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며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인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가 전반부 3연으로 끝났다면 이 시도 부활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부활을 자연의 섭리나 인간의 이야기로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이 시의 핵심 메시지는 후반부에 있습니다. 후반부에서 부활의 진정한 능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소망의 표현 "싶습니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4연은 살아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4연은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5연은 더 큰 부활의 갈망입니다.

시인은 "주님이 부활하신 무덤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새봄에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풀포기가 아니라 주님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은 것입니다.

6연은 <싶습니다>가 두 번 등장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삶에 담기는 축복을 사모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니다. 신앙인이란 시인의 고백이 구구절절 가슴이 와 닿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모든 표현, 모든 고백에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이 시의 메시지처럼 올해 부활절에 우리 신앙이 부활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무덤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의 모습이라도 부활을 아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 머금고 믿음의 향기 발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증거가 되는 매년의 부활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태광 목사(World Share USA 대표)

Advertisement for Samsung Shipping (SAMSUNG SHIPPING) featuring a ship, Statue of Liberty, and Hollywood skyline. Text includes: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and a list of servic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moves.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서울 메디칼 그룹

호그 병원
Hoag Hospital

애너하임 리저널 병원
Anaheim Regional Medical Center

세인트 주드 병원
ST. Jude Medical Center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Cedars-Sinai Medical Center

UCLA 병원
UCLA Medical Center

세인트 조셉 병원
ST. Joseph Medical Center

할리우드 차병원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SEOUL MEDICAL GROUP

U.S. 최고의 대형병원들과 함께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

열왕기 속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발견 가능?



레이몬드 딜라드는 WBC 성경주석 시리즈 중 <역대하>를 집필한 성경학자이고(솔로몬, 2005), 이번에 좋은씨앗에서 출간된 <열왕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와 함께 단 두 권의 책이 국내 보급된 인물이다.

출판사는 딜라드에 관하여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데 정평이 난 학자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는데, 그의 책을 추천한 사람 중 싱클레어 퍼거슨과 D. A. 카슨, 모세스 실바 등 건전하고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데 헌신하고 있는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 다소 생소한 딜라드 역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저자의 가장 큰 관심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것이다. 그는 십대 초반 성경 읽기에 관심을 둔 이후 구약 성경을 통해 개인을 위한 격려와 교훈을 얻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들을 통하여 새로운 성경 읽기 관점을 배우게 됐다.

“나를 위한 교훈 찾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찾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로 이어지는데,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성경 읽기의 유익은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조화롭게 이해하는 방식을 배웠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구약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을 누려왔다. ‘그리스도 중심’을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스도의 예표나 상징을 찾아보기 힘든 본문에서 억지로 찾아내려 하

면,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냈다고 강조하는 주일학교/학생부 교재나 일반 신앙서적에서 종종 발견한다. 가령 성막의 여러 기구와 도구를 그리스도의 여러 성품과 사역과 역지로 연결지으려 한다.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발견한 교훈들은 신선하고 흥미로울지는 몰라도, 성경이 주장하는 내용과 거리가 멀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말이다.

레이몬드 딜라드가 풀어낸 열왕기에서 그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열왕기 본문 해설과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저자는 이 책이 ①경건한 독서 길잡이 ②소그룹 성경공부 ③설교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성도 개인부터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및 목회자에게 두루 유익을 끼치기를 바란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어떤 독자에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직소 퍼즐이 착각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퍼즐 전체가 보여주기 원하는 큰 그림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큰 그림이 저자가 원하는 하나님의 계시라면, 우리는 저자가 어떤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충분히 납득될수록, 퍼즐이 맞춰지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큰 그림을 통해 깊은 감동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독자는 저자가 설명하는 열왕기 본문을 이해하는 지식(저자가 충분히 잘 설명해 주기 때



주세페 안젤리(Giuseppe Angeli),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Elijah taken up in a chariot of fire, 1740-1755, Oil on canvas).

문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식)과 함께, 저자가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부족한 만큼 혼란이 가중된다.

그럼에도 이런 방식의 성경 읽기와 성경 강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방식이고, 또한 제자들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제시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점 중 하나인 분열 왕국 시대,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악한 왕과 백성이 우상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심하기를 원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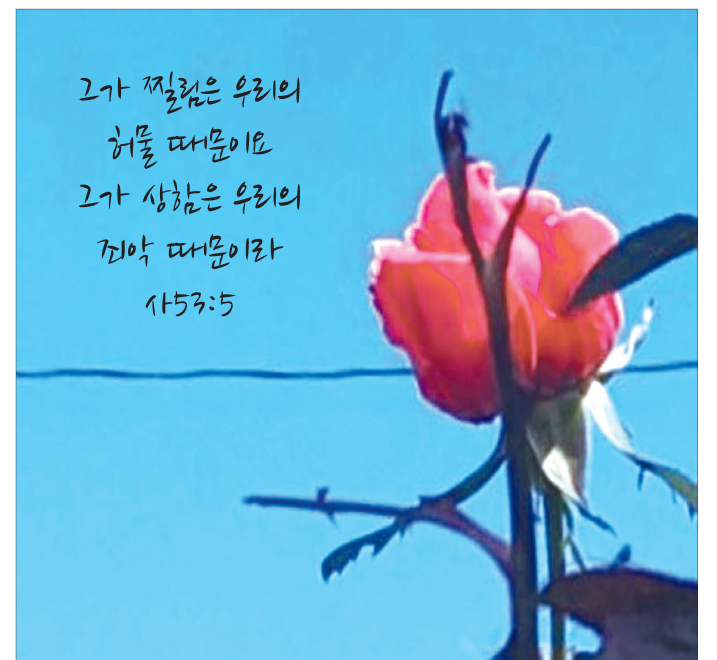
오늘날 교회가 속한 시대는 말세로, 갈수록 암울해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영적으로는 더욱더 우

상승배에 빠지기 쉬운 때이고, 그래서 더욱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심을 선포해야 한다. 레이몬드 딜라드가 어떤 메시지를 이 악한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지 <열왕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 그 모델을 보여준다. 이 책을 통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을 배우자.

이 책을 통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법을 배우자.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이제 도덕적 교훈적 설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긴급함을 채울 수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보여주자.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사순절의 고통을” | 그레이스 김 권사



3월, 작가들의 말말말

■ 김효경 - 예수의 식탁 이야기

예수의 모든 식탁은 단순히 배를 불리는 곳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는 표적이다.

예수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나는 식탁은 이러한 표적의 연속선상에 있다. 예수는 ‘먹보’라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늘 누군가와 먹으며 다녔다. 그런데 그의 식탁은 유별

났다. 그는 죄인들과 밥을 먹었으며, 밥을 먹을 때 지켜야 하는 정결법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이 때문에 예수의 식탁은 늘 바리새인들의 도마에 올랐다. 그의 식탁은 더러웠기 때문이다. 표적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은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았다.

반면에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에도 그를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고난의 길에서,

그들은 예수의 삶을 살려고 애썼을 것이다. 무슨 대단한 기적이나 놀라운 능력이 아니더라도 제자들의 일이 예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듯 먹이는 표적을 통해서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열린 식탁, 디베라 호숫가의 식탁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는 따뜻한 식탁, 그 식탁을 통해서 제자들도 자라며 예수의 생명이 이어진다.

언제, 어디서든 그의 사람들을 따라 떠도시는 하나님과 함께 말이다.

예수 부활하셨네

동양선교교회

예배시간 안내

-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주소 및 전화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김지훈 담임목사

예수 부활하셨네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예배시간 안내

- 1부 예배 오전 10:30
- 2부 예배 오후 1:30
- 성경 공부 오후 3:00
-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산타모니카 말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주소 및 전화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kyung.kim@biola.edu
www.smkc.us

김경렬 담임목사

Dallas Baptist University
Talbot Seminary
Azusa Pacific University
BA, MA, MDiv,
DMin(candidate)



He is Rise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ANC 온누리교회
ANC 온누리교회는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이한 CRC 교단 소속교회이며 LA 선랜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ELEBRATE EASTER

His STORY does not end here

ANC 온누리교회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시작한 ANC 온누리교회가 이제 28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하여 힘쓴 흔적들이 열매로 맺혀있고,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시간

주일예배	1부	7:30 am
	2부	9:30 am
	3부	11:30 am
(Passion Worship)		
금요워십		7:45 pm (금)
새벽기도회		5:30 am (월-금)/6am (토)
주일학교/중고등부	1부	9:30 am
	2부	11:30 am
영어회중(ANCC)	1부	9:30 am
	2부	11:30 am
장애인 예배(GM)		9:30 am

10000 FOOTHILL BLVD., LAKEVIEW TERRACE, CA 91342 / 818-834-7000 (담임목사_김태형)

WWW.ANCONNURI.COM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He is Risen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7:45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9:45
주일 3부 예배	주일 오전 11:45
EM & 대학부예배	주일 오전 10:00
중고등부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45
청년부 모임	주일 오후 1: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www.beautifulchurch.org

라스베가스에서 장독 목회, 복음과 함께 한국문화도 전파

[라스베가스 한인교회를 가다]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임인철 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담임 임인철 목사)의 한 칸에는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내은사인과 대조되는 ‘신도불이’ 장독대가 늘 자리하고 있다. 이 장독 안에는 성도들이나 새 가족에게 나눠줄 고추장과 된장이 항상 대기 중이다. 이민교회 중에서도 특별한 환경의 라스베가스, 이곳에서 사람들을 보다 쉽게 만나고 복음을 더욱 잘 전하기 위한 매개체 중 하나로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장독대였다. 교회가 된장, 고추장 등을 만드는 한국전통음식 클래스를 열어 자연스럽게 지역의 한인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의 문화도 이민자들에게 전하고 복음도 전하는 일석이조의 사역인 셈이다.

“마침 우리 교회에 된장과 고추장을 국보급으로 잘 담그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다른 클래스들도 많지만 특히나 된장과 고추장 클래스는 열 때마다 큰 인기입니다. 한국의 전통 장들을 아주 쉽게 담글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 주니 다들 감사해 하는 분위기이고 이제는 지역의 젊은 엄마들에게도 소문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임인철 목사가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하면서 주목했던 것은 바로 ‘문화’라는 키워드였다. 많은 한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그리워하고, 이민자들의 자녀 또한 한국의 문화와 단절돼 크게 멀어져 가는 상황에서 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세대간에도 문화를 통해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임 목사는 생각했

다. 임 목사는 자신의 목회에 대해 거창한 목회철학은 없다면서 “다양한 문화 클래스를 통해 교회 사역이 활성화된 것 또한 필요에 따라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밝혔다.

라스베가스 중앙교회는 현재 거의 매일 교회에서 다양한 문화 클래스를 열고 있다. 월요일 동양화 클래스를 비롯해 엑셀 등을 가르치는 컴퓨터 클래스, 꽃꽂이 클래스, 골프 클래스까지 그 분야가 넓다. 그 중 단연 인기 있는 클래스는 젊은 엄마들 사이에 소문이 난 된장, 고추장 클래스다. 때로는 이 클래스를 통해 정국장이나 곱감을 만들어져 판매되기도 한다. 가을만 되면 교회 한 칸에는 곱감이 주렁주렁 매달린다. 쌀쌀한 겨울에는 붕어빵도 큰 인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음식이 하나의 중요한 교회사역이 됐다.

“우리 교회에 온 아이들이 처음에는 된장도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을 젊은 엄마들이나 그 자녀들이 잊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음식을 최대한 맛있게 만들어서 진교를 나눴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계장을 입에 물고 다닐 정도로 토양이 바뀌어졌습니다. 한국학교도 이런 문화의 중요성을 생각해 시작한 것입니다. 컴퓨터 코딩이나, 기타를 배우는 시간도 있지만 연극을 통해서 흥부전을 연습하기도 하고 한국음식도 같이 만들어 보는 등 최대한 한국의 문화를 다음 세대들에게 알리고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임인철 목사. ©기독일보

임인철 목사가 라스베가스 중앙교회에서 담임목회를 맡은 때는 2017년이다. 한국에서도 목회를 했었고, 남가주에서도 부목사로 두 교회에서 사역한 바 있는 그였지만 라스베가스는 이전의 두 곳과는 또 다른 환경의 목회지였다. 많은 고민도 됐지만 무엇보다 그를 라스베가스 목회로 이끌었던 것은 처음 이 교회에서 설교를 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강한 확신이었다. 목회지를 남가주에서 라스베가스로 옮긴다는 것은 가정에 있어서도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사모와 자녀들은 선뜻 라스베가스로 옮기는 것에 동의하지 못했다. 자녀들의 경우 이미 남가주의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로 다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임 목사는 이때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말씀인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는 이사야 43장19절을 들어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응답해서 가는 것이 목회자의 길임을 강조했다. 그렇게 라스베가스로 사역지를 옮겨 온 이후 두 자녀는 신앙 안에서 더욱 크게 성장해서 이제는 교회사역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컸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교회에서 집회를 시작해 현재까지도 두 아들이 모두 예배자로 모임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같이 기도하며 이 모임을 돕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클래스만이 라스베가스 중앙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철저한 말씀 교육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커피 브레이크>와 <어? 성경이 읽히지네!> 두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을 하는데 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사뭇 진지하다. 이렇게 성실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의 성장이 눈에 보이게 됐을 때 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막에 강을 내기 원하셨구나’하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됐다고. 특히 일주일의 많은 사역 중 2부로 나눠 드리는 주일예배에 보다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 “예배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이 임 목사의 말이다. 지난 팬데믹 기간에도 오히려 교회가 성장했다. 팬데믹이 끝난 이후 성도수가 2배가 늘었고 재정 또한 더욱 안정적이 됐다.

“팬데믹 기간 중에는 최대한 예배에 대한 긴장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능한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게 했고, 혹여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 카톡, 줌 등을 활용해 말씀을 계속 나누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스베가스 목회환경은 주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점차 바뀌고 있다는 것이 임 목사의 설명이다. 7년 전만해도 호텔과 카지노 등에 관련된 직종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라스베가스가 가족들의 휴양지로 서서히 탈바꿈하고 있고 그 사이 풋볼, 야구, 농구, 하키 등의 프로스포츠팀들이 생기면서 전반적인 산업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또한 예전보다 더욱 다양한 직종의 전문직 성도들이 늘었다.

현재 임인철 목사는 라스베가스 교회협의회 회장을 맡아 섬기고 있기도 하다. 목회자들간의 연합과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부활절 연합새벽예배와 연합부흥성회, 유스연합수련회 등의 전통적인 사업들과 함께 올해는 특별히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한 달에 한번씩 언어가 다르더라도 2세대들과 함께 하는 기도회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라스베가스의 한인들의 수가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4만 명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들이 수가 40여 개인데 성도들을 다 합쳐도 전체 한인들 숫자의 10%가 안됩니다. 교회를 떠난 한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해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가 라스베가스 한인교회들이 당면한 숙제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라스베가스 중앙교회는 또 한번의 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9월 보다 넓은 지역으로 교회의 장소를 옮길 계획이다. 새로운 장소에는 데이케어와 미션스쿨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다음세대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임 목사는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로의 이전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올해의 우선적 목회의 목표입니다. 교회를 옮기고 새롭게 짓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오거나 상처받고 떨어지는 성도들이 있기 마련인데 저는 헌금을 굳이 교인들에게 이야기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면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도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하나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대원 기자



라스베가스 중앙교회에서 고추장 클래스가 한창 진행 중이다.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龍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HAPPY EASTER

Hills

BEAUTY CLUB

▪ Tue ~ Sun: 9:00 am ~ 7:00 pm
▪ Monday : Closed

21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323-465-7400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진유철 담임목사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순복음의 새 역사를 만드는
나성순복음교회
LA FULL GOSPEL CHURCH

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 Tel. 323-913-4499
lafgusa@yahoo.com YouTube 유튜브 채널 - '나성순복음교회' @LAFGCTV



예배안내

1부	오전 7:30 분당
2부	오전 9:30 분당
(열린예배) 3부	오전 11:45 분당
(조용기독교 영성예배) 4부	오후 1:30 권사회실
새벽예배	월 - 토 오전 5:30 / 분당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 분당
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7:30 / 분당
영아부 예배(0-2세)	주일 오전 9:30, 11:45 / 분당 영아부실
유치부 예배(3-5세)	수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2층 유치부실
유년부 예배	주일 오전 9:30(영어), 11:30(한국어) / 구 교육관
	금요일 오후 7:30 (AWANA) / 구 교육관
WG 영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영어중고등부실
JVT 한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한어중고등부실
청년 예배	주일 오전 11:45 / 분당
EM 예배	목요일 오전 9:30 / 구,신 교영육관
실버드림대학	토요일 오전 9:00 / 구,신 교영육관
토요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9:30 / 구,신 교영육관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7:3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30

YDC한어대학청년부
4부예배 (청년대학부) 주일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Email: admin@thanksgivingchurch.com
T. (714)521-0991 Fax: 714-521-4636
http://thanksgivingchurch.com/



감사한인교회
THANKSGIVINGCHURCH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 하셨습니다!”




김한요 목사
Rev. Bryan H. Kim, Lead Pastor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 1부 예배: 오전 7시 / 분당
- 주일 2부 예배: 오전 9시 / 분당
- 주일 3부 예배: 오전 11시 / 분당
-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후 2시 / 분당
- 주일 영어 예배: 오전 9시(1부), 11시(2부) / BGC 채플
- 주일 日本語 礼拝: 오후 1시 15분 / 임마누엘 채플
- 주중 새벽 기도회: 화-금 오전 5시 30분 / 분당
- 토요 햄스터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분당
- 수요일 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분당

베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Tel (949)854-4010 • Text-only: (949)229-1181
www.bkc.org • email: bethel@bkc.org • 수양관 (949)943-9697